

## CHAPTER 3. 수시 합격 결정짓는 마지막 하나

###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는 곧 '내신'

#### 수시 확대 기조로 갈수록 심화되는 내신 경쟁

가장 큰 이유는 수시 확대 기조로 인한 내신 경쟁의 심화입니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은 총 25만8920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의 무려 74%에 이르는 수치지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감소했지만 수시모집 인원은 오히려 1만여 명 늘어난 것이지요. 이중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이 14만159명(54.1%)으로 가장 많고, 8만3553명(32.3%)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전체의 10분에 7에 이르는 수시 전형을 포기하면 그만큼 대입 합격률은 낮아집니다. 수험생들이 수시 전형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즉 수시 전형에 올인하는 학생이 많아지다보니 학교에서 내신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많은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문제는 학생부위주 전형의 핵심 평가요소가 내신 성적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이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지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할 뿐, 내신 성적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사항'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 모집분야와 관련된 교과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얻지 못했거나 '1학년 때 해당 교과 성적이 낮았지만 특정한 계기로 해당 교과에 관심을 갖고 성실히 공부하여 3학년 때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식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없으면 경쟁자들 사이에서 강점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몇몇 학생들은 내신 때문에 전학까지 고려할 정도죠. 단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하며 심지어는 '소수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도 합니다. 내신 지필고사의 경우 문항당 배점이 '2.5 점' 또는 '3.6점' 등 소수점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서 일선 고등학교들은 내신 변별력을 위해 지필고사 난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학생들의 내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출제한다면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학교 교사 입장에 서는 시험의 전체적인 난도를 높이거나 상위권과 중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 2~3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수행평가’도 내신 성적 편차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내신은 지필고사 성적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성적으로도 학생을 평가합니다. 수행평가는 학생이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드러낼 수 있는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으로, △토론 △발표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주로 요구하는데, 최근에는 특히 과정 중심 수업 및 평가가 강조되면서 수행평가 비중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고교에서 는 수행평가 비중을 30~40%로 두고 있지요.

수행평가에서 강점을 가지려면 다양한 역량이 요구됩니다. 급우들 앞에 서 발표를 하려면 표현력이 있어야 하고, 생각의 독창성도 있어야 하지요. 눈에 띄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려면 창의력도 필요합니다. 토론을 잘 하려면 논리력도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수행평가가 팀별로 진행되는 만큼 협동심도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해당 활동들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꼼꼼함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 강한 학생들보다 다양한 역량을 골고루 갖추고 해당 활동들을 동시에 처리해낼 수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이지요. 반대로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며,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파는 집중력과 탐구력이 뛰어난 ‘모의고사형’ 학생들은 수행평가에 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 치열한 경쟁 속에서 ‘희망’ 만들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입 에서 수시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 그 중에서도 학생부위주 전형이 점차 증 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내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능은 3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단 한 번의 평가로 검증받는 시험이지만 내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1 년에 4번, 3년 동안 총 12번의 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더라도 자신을 다독이며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해본 뒤, 학교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특히 수행평가에 약한 학생들의 경우 최종 평가를 받기 전 교사에게 중간 검토를 요청해 자신의 결과물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고1은 첫 시험에서 받은 낮은 내신 성적에 좌절하기보다 남은 학기 내신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고교 생활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며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낮은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학년 때 3~5등급대의 낮은 성적을 받았더라도 2, 3학년 때 꾸준히 성적이 상승하는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면 학생부종합전 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학년 시기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성적이 부진하게 나왔지만, 학년 이 올라가며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자기소개서에서 자세히 풀어쓴다면 입학사정관들도 이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학년의 성적이 고루 좋은 것이 가장 좋지만, 특정 학기의 특정 과목 성적이 다소 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납득시킬만한 근거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감안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학년 때는 성적이 그다지 우수하지 않았던 학생이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성적을 올 리는 모습을 보 인다면 학생의 노력과 성장가능성을 입학사정관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1, 2학년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은 고3 내신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수능에만 집중하는데, 승산이 없는 수시보다는 정시를 목표로 수능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전형요소인 수능이나 논술에만 집중 한다는 것은 자칫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시와 정시에서는 하나의 전형 안에서도 다양한 전형요소들 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원하는 대학과는 점차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학년 내신은 수시에서 학생부 성적 반영 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학별로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과 그 비중은 다 다르지 만, 3학년 1학기의 성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년별 내신 성적 반영비율을 20:40:40으로 둡니다. 재학생들의 경우 3학년 내 신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3학년 1학기는 1학년, 2학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학생부교과전형 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논술전형에서도 학생부교과전형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비슷한 교과 성적일 경우 학년이 오르면서 향상되는 학업성취도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 성적은 이전 학기 성적보다 더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학업역량이 뛰어난 일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낮은 내신등급 에 좌절하기 쉽겠지만 성적표에 찍힌 내신등급을 숫자 의미 그대로 받아 들여선 안 됩니다. 입시설명회 혹은 입시 커뮤니티에서 "O 등급대의 학생 들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OO대학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학교의 역량에 따라 같은 3등급이어도 입학사정관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 상위권 대학 의 경우 학교별 학업 역량을 고려해 학생의 내신 점수를 평가하므로 단순 히 지금 낮은 내신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기보다는, 학교 선생님과 의 상담을 통해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교 선배들의 내신

성적을 확인한 뒤 장기적인 내신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 중간, 기말고사에 몰입해야 하는 이유

어떤 대입 전형에서든 높은 내신 성적은 확실한 이점입니다. 매 학년 중 간·기말고사에서 고교생들이 반드시 좋은 성적을 얻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내신 시험을 위한 '워밍업'에 돌입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학습의지를 다잡고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학습의지를 다잡기 쉽지 않은 고교생이라면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내신 성적을 살펴보고 싶을 것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개설한 대입 정보포털 '어디가' 또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커트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목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확인해본 뒤 그에 따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에 기록된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 모든 고교를 동등하게 여겨 내신이 높은 순서대로 학생들을 선발하므로 내신 성적이 조금이라도 높은 학생이 이 합격에 유리하지요.

'어디가' 뿐만 아니라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시결과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양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2016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16학년도 한양대 학생부교과전형 중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평균 등급이 가장 높은 학과는 파이낸스경영학과와 수학교육과로 평균 1.01등급이었습니다. 3년간 거의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이들 학과에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합격한 것이지요. 내신 평균 등급이 가장 낮은 학과는 교육학과와 소프트웨어 공이었었는데, 이들 학과의 내신 평균 등급도 1.25등급으로 결코 낮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 주요대학에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내신 1등급대 초반을 유지해야 합격 안정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신 평균 성적이 1등급대 중후반인 학생이라면 학교시험에서 성적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상의 모든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 경험이 많다고 해도 내신이 5등급, 6등급인 학생이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을 예로 들어봅시다. 2016학년도 고려대 학생부종합전형이었던 융합형인재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학과인 미디어학부(38.40대 1) 최종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등급은 2.2등급이었습니다. 6.33대 1의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가정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은 1.8등급으로 오히려 더 높았지요.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을 보면,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등급이 가장 낮은 모집단위 는 생명공학대학으로 평균 3.36등급이었습니다. 내신 평균 등급이 가장 높은 모집단위는 사범대학으로 1.96등급이었고, 대부분의 모집단위는 2등급 초반의 내신 평균 등급을 보였습니다. 비교과 활동 경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학생이라면, 최소한 2등급대의 내신 등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비교과 활동 경험이 풍부하지만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전형) 2017학년도 합격자 학생부 내신 평균 등급에 따르면 경희대 생물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은 4.42등급이었습니다. 이런 예외도 있지만 결국 학생부위주 전형의 핵심은 내신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신 성적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입니다.



## 내신 공부,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을 이원화하여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신의 1차적 목적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교과 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을 묻거나 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개념 이해 문제 위주로 출제됩니다. 수능 또한 교과서 밖이 아니라 교과서 안에서 나오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출제된다는 점에서 내신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역시 '개념 학습'입니다. 상위권 학생들 중에는 간혹 문제풀이에 집중하여 개념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신 시험은 결국 교과서 속의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70% 이

상 나오며, 이외의 유형도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를 적용하는 등의 응용문제이므로 개념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신 시험 기간 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여러 정보들과 수업 시간에 나눠줬던 부교재 자료들을 점검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과 이해가 덜 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자료 정리를 통해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을지를 예상해보고 미리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개념을 복습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충했다면, 이제는 실전 적응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재학 중인 고교 및 주변 고교들의 내신 기출문제들을 습득하여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출문제만을 믿고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들에는 개념의 핵심이 분명히 들어있지만, 매해마다 시험 범위가 다르고 문항을 출제하는 선생님 또한 다르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 및 출제 경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나서는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때까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추가 복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정확한 학습 정도를 모른 채 무리한 목표를 세워 학습을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중위권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무리한 목표를 세울 경우 성적에 맞지 않는 학습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학습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통해 본인의 개념 숙지 정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학습 정도를 알았다면 그에 맞는 실전 가능한 학습 계획을 세워 실천하길 바랍니다.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는 시험 범위 안의 고난도 문제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난도 문제는 점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기본 개념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도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과 변형 문제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뒤에 고난도 문제까지 정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 전 과목의 모든 단원에 걸쳐 복습하기보다는 과목별로 부족한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간혹 개념을 이해하기보다 암기로 공부를 끝내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위권 학생의 경우 단순 암기만으로도 성적 상승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위권 학생이 상위권으로 가기에 단순 암기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암기는 문제를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암기식 공부법은 시험에서 응용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 적용이 어려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을 먼저 이해한 후 문제풀이 스킬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